

본 논문은 이사야 6장 13절의 מַצֵּבֶת/מַצְבָּתָא를 언어학적, 문헌적,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이를 ‘그루터기’로 번역하였으나, 오히려 이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대중종교의 상황을 조명하고 대표하는 제의적 산물인 돌기둥(מַצְבָּתָא 마체바)임을 논증하는데 있다.

이사야 6장과 마체바(מַחְבֵּבָה)의 의미와 기능 연구

장 대규 | 침신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는 이스라엘과 고대 서아시아의 시간, 문화,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 해석에 있어서 성서와 성서 외의 문헌적/고고학적 사유를 통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새롭게 재구성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은 성서의 이해를 돕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난해한 본문의 의미와 세계를 이해하도록 해석의 기반을 놓기 때문에, 이전에 선행된 이데올로기적, 문학적, 수사학적 방법들이 이해하지 못한 본문의 삶의 자리를 여는 창을 제공한다.

이사야의 소명 장이라 불리는 사 6장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 편집 비평적, 정경적, 문학적, 이데올로기적, 주제적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사 6장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와 더불어 13절에 대한 종교사적 자료를 통한 연구는 간헐적이거나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이츠(C. R. Seitz)는 사 6장의 역사적 배경 설명에 있어서 앗시리아의 공격에 대한 언급과 13절의

תַּבְּרָא/תַּבְּרָא (마차브타/마체베트/그루터기?)에 관하여 어떠한 제의적/종교적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¹⁾ 스위니(M. A. Sweeney)도 양식 비평에 의해서 사 6장의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종교적 연구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²⁾ 윌리엄슨(H. G. M. Williamson)도 사 6장에 대하여 편집사적/어원적 배경에 대한 연구에 머문다.³⁾ 장 세훈은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에서 다양한 이사야의 해석 방법 소개를 통하여 문학적/신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역사적/종교사적 접근을 통한 이사야에 대한 해석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⁴⁾

사 6장에 관한 조 성욱의 “이사야의 스랍 이미지 연구”⁵⁾와 김 회권의 “남은 자의 사상에서 나타난 이사야의 민족 통합 신학”의 논문이 소개되었다.⁶⁾ 한국구약학회는 「구약논단」 제 25집을 특집으로 이사야 6장 해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김 회권의 “하나님의 결단의 신학: 사 6장의 주석적 연구,” 김 상래의 “사 6장의 이상의 현장은 어디인가?,” 이 용호의 “확실하게 들어라!,” 김 재구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의 신학적 기능,” 조 명기의 “1QIsa^a Col. VI: 2b-10”의 논문들은 어원적 분석, 성전의 삶의 자리, 본문간의 대화 분석, 장르에 대한 분석, 마소라 본문과 1QIsa^a를 비교하는 연구가 소개되었다.⁷⁾

1950년대에 비드버그(F. Hvidberg), 브라운리(W. H. Brownlee), 그리고 올브라이트(W. F. Albright)에 의해서 사 6장 13절에 대한 전통적인 부분에 문제 제기가 대두되었다. 비드버그, 브라운리, 그리고 올브라이트는 전통적인 번역 ‘그루터기’를 지양하고 마체바에 대한 번역을 시도하고 본문의 수정을 제안하였지만, 폭넓은 문헌적/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본문비평의 수정과 제안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⁸⁾

1) C. R. Seitz, *Isaiah 1-39*,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3), 54-60쪽.
 2) Marvin A. Sweeney,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6), 136-40쪽.
 3) H. G. M. Williamson, *The Book Called Isaiah: Deutero-Isaiah's Role in Composition and Redaction*, (Oxford: Clarendon, 1994), 55-56쪽.
 4) 장 세훈,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서울: 이레서원, 2004), 22-102쪽.
 5) 조 성욱, “이사야의 스랍 이미지 연구,” 「성서학 연구원 저널」 55집(2008), 3-45쪽.
 6) 김 회권, “남은 자 사상에서 나타난 이사야의 민족통합 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집(2005), 41-65쪽.
 7) 「구약논단」 25집(2007년), 6-119쪽을 참조하라.
 8) F. Hvidberg, “The Masseba and the Holy Seed,” S. Mowinkel(ed.), *Interpretationes: Ad Vetus Testamentum Pertinentes*, (Oslo: Fabritius & Sonner, 1955), 7-9쪽; W. F. Albright,

따라서 본 연구는 사 6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역사적 현상의 하나인 13절에 언급된 **מַצְבָּת/מַצְבֹּתָא**의 연구를 통하여 **מַצְבָּת/מַצְבֹּתָא**가 전통적으로 번역되어온 ‘그루터기’(stump)의 개념이 아닌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대중 종교의 상황을 조명하고 대표하는 제의적 산물 마체바(**מַצְבָּת**/돌기둥)임을 논증할 것이다. 본 논고는 마체바에 대하여 고대 서아시아의 우가리트 문헌(KTU)을 포함한 구약성서의 문헌적 연구를 통해서 마체바의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문헌적 증거가 어떻게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문화적 상황 속에서 입증되는지 후기 청동기부터 철기 II 시대에 해당되는 고고학적 사유를 연구할 것이다. 문헌적/고고학적 마체바의 기능과 의미를 통하여 사 6장 13절에 나타난 **מַצְבָּת/מַצְבֹּתָא**가 제의적/기념적 **מַצְבָּת**(마체바/돌기둥)로 이스라엘 대중 종교와 사 6장에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2. 이사야 6장 13절의 **מַצְבָּת/מַצְבֹּתָא** 번역과 선행 연구

사 6장 13절에 소개된 **מַצְבָּת/מַצְבֹּתָא**는 삼하 18장 18절 외에 구약성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단어이다. 에머톤(J. A. Emerton)과 영어 번역본(RSV, NASB, NIV, JB)은 전통적으로 ‘그루터기’로 번역하고 지지하며, 개역개정, 개역한글, 표준새번역,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도 ‘그루터기’ 번역을 제안하고 있다.

사 6장 13절에 사용된 **מַצְבָּת/מַצְבֹּתָא**의 근본적인 어원의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같은 어원(cognate)의 아람어/시리아어도 ‘세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사 6장 13절에 대해서 시리아어는 *neṣb^eteh* (his planting)으로 번역되고 아람어는 *niṣbātēhōn* (their plant)로 번역된다. 본문의 문장 구조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체바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원적 의미를 배제하고, 이사야서에서 강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나무 비유’와 이사야서의 상황적 배경으로 13절의 **מַצְבָּת/מַצְבֹּתָא**를 ‘그루터기’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아닐 뿐더러, 사 6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배경과 심판의 원인에 빛나가는 해석이다.

그루터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עץ**(계자)로 사 11장 1절과 욥 14장 8

“The High Place in Ancient Palestine,” *VTSup* 4 (1957), 242-58쪽.

절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어원적으로 ‘나무의 그루터기’(a tree-stump)를 의미한다.

브라운(Brown), 드라이버(Driver), 브릭스(Briggs)의 영향으로 사 6장 13절의 **מַצֵּבָה/מַצְבָּה**는 전통적인 ‘그루터기’로 번역되고 정착되었다. 소어(J. Sawyer)도 사 6장 13절에 대한 쿨란 사본의 연구에서 고고학적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단지 ‘그루터기’나 ‘밑동 줄기’를 주장한다.⁹⁾

하지만 사 11장 1절에 사용된 ‘그루터기’(עֵצ)와 **מַצֵּבָה/מַצְבָּה**의 두 단어는 근본적인 어원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מַצֵּבָה/מַצְבָּה에 대한 번역은 삼하 18장 18절에 소개된 ‘기념비/돌기둥’(מַצְבָּה)이 정확한 번역이다. **מַצְבָּה**는 아카드어 복수 형태의 명사인 *našbāti*에서 나온 단어이다. 같은 어원의 증거는 페니키아어(*nsbt/mnsbt*), 구-아람어(*nsbt*), 그리고 아라비아어(*mnsb*)에서도 입증된다. 페쉬타의 번역 *mšbth*도 **מַצְבָּה**의 의미로 ‘세운다’(set up)는 동사에 기초한다. 하지만 번역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헬라어 번역본(A, Q, B, Syh)에서는 마지막 단락이 누락되어 있으며, 다른 번역본¹⁰⁾도 이 부분을 괄호 안에 넣고 있다. Louis Vuitton Bible은 사 6장 13절의 번역을 완전히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헬라어 번역본 테오도치온(Θ Theodotion)은 “its pillar”로 번역하고 있고, 아킬라(α Aquila)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헬라어 번역본에서 마지막 문구는 결국 기념적 돌기둥을 암시한다.

어원적 분석에 의하여 기테이(Y. Gitay)는 **מַצְבָּה**를 ‘세운다’의 분사형으로 이해하고 **מַצְבָּה**를 ‘기념비’(a memorial)로 번역하기를 주장한다.¹¹⁾ 비드버그는 마체바의 기본 어원적 개념을 따라서 ‘기둥’(pillar)을,¹²⁾ 브라운리는 ‘성스러운 기둥’(a sacred column)을,¹³⁾ 올브라이트

9) J. Sawyer, “The Qumran Reading of Isaiah 6. 13,” *Annual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3 (1964), 111-13쪽.

10) Moffatt, *the New American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Einheitsübersetzung der Heiligen Schrift: Das Alte Testament* (1974).

11) Y. Gita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The Netherlands: Van Gorcum, 1991), 126쪽.

12) Hvidberg, *윗글*, 7-9쪽.

13) W. H. Brownlee, “The Text of Isaiah vi, 13 in the Light of DSl_a,” *VT* 2 (1951), 296-98

는 ‘석비’(Stelae)를 주장한다.¹⁴⁾ 사 6장 13절의 מצבת/מצבתים에 대한 번역과 의미는 이미 전통적인 입장의 ‘그루터기’ 개념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어원적 분석을 통하여 사 6장 13절에 소개된 מצבת/מצבתים는 ‘그루터기’가 아닌 제의적/기념적(상징적) 개념의 ‘돌기둥’(מצבה)임을 문헌적/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마체바의 문헌적 증거

돌기둥에 대한 어원적 분석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개념에서 고대 이스라엘들은 마체바를 표시, 기념, 혹은 제의적 돌기둥으로 생각하였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역사 시대부터 종교적 개념과 더불어 종교사학파는 성스러운 돌기둥의 다른 의미를 추구하였다. 벤징거(I. Benzinger)에 의하면 마체바는 남근의 상징 혹은 신성한 산의 상징과 더불어 신성한 나무에 나타나는 여성 신의 현존과 병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⁵⁾ 마체바는 단지 제의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시, 법률/계약, 기념,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성서와 성서 외의 문헌은 입증하고 있다.¹⁶⁾

첫째로, 마체바는 죽은 사람의 장지를 기억하기 위한 표시적 기능을 나타낸다.¹⁷⁾ 창 35장 19-20절에서 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의 묘에 비(מצבה)를 세웠다.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어떠한 성스러운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상의 어머니 무덤에 표시로 마체바를 세웠다. 마체바는 단지 무덤이나 장사 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행하였

쪽.

14) Albright, *위글*, 242-58쪽.

15) Immanuel Benzinger, *Hebräische Archäologie*, (Tübingen: J. C. B. Mohr, 1907), 322쪽.

16) Daegyu J. Jang, “The Iron Age II City Gates in Palestine: The Textu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Ph. D. dis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6), 150-53쪽; E. C. Larocca-Pitts, “Of Wood and Of Stone”: *The Significance of Israelite Cultic Items in the Bible and Its Early Interpreters*, (Winnona Lake, IN: Eisenbrauns, 2001), 205-28쪽; Carl F. Graesser, “Standing Stones in Ancient Palestine,” *BA* 35 (1972), 37-48쪽.

17) Mark S. Smith,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2002), 126-32쪽을 참조하라.

다. 마체바가 세워진 곳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제의 행위가 거행되었다. 고대 청동기/철기 시대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은 돌기둥에 기름을 붓는 행위 혹은 죽은 자에게 헌물을 바치는 제의 행위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그 돌기둥(מִצְבֵּה)에 현존하는 것으로 믿었다.¹⁸⁾ 따라서 마체바는 조상신의 무덤 표시 기능과 더불어 조상 제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우가릿 문헌(KTU 6.13-14)은 마체바와 죽은 자의 제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한다.¹⁹⁾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적 증거를 통하여 무어(J. C. de Moor)는 마체바가 조상의 제의에 있어서 죽은 자의 주검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KTU 1.17: I.26-28은 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이 행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로 조상신들을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nšb skn 'il'ibn/그의 조상의 신들의 돌기둥을 세우는 자*)을 증거하고 있다.²⁰⁾

둘째로, 마체바는 개인 혹은 그룹 사이의 합법적/법률적 관계의 조약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C. F. Graesser)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가장 흔한 마체바의 기능은 각 영토의 경계와 두 개인/그룹들의 조약 돌기둥으로 기원전 3,000년 수메리안 도시 국가로부터 시작되었다.²¹⁾ 창 31장 49-52절에 라반(Laban)은 야곱과 합법적인 계약을 맺음으로 두 개인의 조약 체결의 증거로 길르앗(Gilead)과 아람의 경계선에 마체바를 세운다.

조약의 기능을 나타내는 마체바는 신의 현현을 통해 인간과 신과의 언약 체결에서도 나타난다. 신의 현현이 나타난 제의적 기능과 교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E 문서(창 28: 18-22; 35: 14; 출 24: 4)에서 마체바는 야훼와 언약을 맺은 그룹이나 혹은 마체바를 세운 사람에게 의해서 맹세 혹은 증거물로 사용된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계약의 갱신 증거로 '큰 돌'(מִצְבֵּה)을 세운다. 수 24장 26-27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마체바가 모든 백성에게 증거가 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מִצְבֵּה)이 들었다고 증언한다.

18) G. von Rad, *Genesis*, rev.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2), 351쪽.

19) D. Deitrich, O. Loretz, and J. Sanmartin (eds.), *Cuneiform Alphabetic Texts from Ugarit, Ras Ibn Hani and Other Places: Die Keilalphabetischen Textes aus Ugarit*, (Münster: Ugarit-Verlag, 1976)을 참조하라. 본 논고 이하에서 KTU라 약칭한다.

20) J. C. de Moor, "Standing Stones and Ancestral Worship," *UF* 27 (1995), 8쪽.

21) Graesser, *윗글*(1972), 74쪽.

신 27장에 예발 산에 세워진 돌기둥은 계약의 표시 기능으로 세워졌다. 사 19장 19절에서 나타난 마체바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경계 선상에 증거물로 세워진 조약의 기능을 나타낸다.

셋째로, 마체바의 기능은 국가의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개인과 연관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²²⁾ 메팅거(T. D. N. Mettinger)는 개인과 연관된 사건의 기념적 기능은 후기 신석기 장례지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²³⁾ 장례지 뿐만 아니라 삼하 18장 18절에 압살롬(Absalom)은 자신의 아들이 없음에 대해서 기념적 돌기둥을 세웠다. 고대 서아시아에서 국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과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왕은 기념 석비를 세웠다(Til Barsib, Zincirli, Carchemish, Tel Malatya).²⁴⁾ 기념 석비는 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업적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특징을 나타낸다. 삼상 15장 12절에 사울 왕은 갈멜산에 아멜렉에 대한 승리의 기념으로 비(בִּירָמָה)를 세웠다. 갈멜산의 마체바는 신의 현존 앞에서 감사와 더불어 승리를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다. 비록 마체바의 명확한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수 4장의 길갈(Gilgal)에서의 기념비, 수 24장의 세겜에서 상수리나무 아래 돌기둥과 삼상 7장 12절에서 야훼의 도움으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승리의 기념비(도움의 돌)를 세운 것은 어느 정도 고대 서아시아와 팔레스타인에서 마체바의 기념적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마체바는 신이 현현한 장소를 신성화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제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렘 43장 13절에는 이집트 땅 벳세메스(Bethshemesh)의 주상들을 깨뜨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 벳세메스는 문자적으로 '태양(shemesh)의 집(beth)'이라는 뜻이며, 13절의 주상은 문자적으로 '돌기둥'(בִּירָמָה)을 의미한다. 고대 도시 벳세메스는 이방의 제의적 장소로 그곳에 세워진 오벨리스크(obelisk)는 결국 태양신(Atum-Re)을 상징하는 제의적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T. D. N. Mettinger, *No Graven Image? Israelite Aniconism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International, 1995), 170쪽.

23) 윗글, 32쪽.

24) 장 대규, "이스라엘 철기 II 시대(1000-586 BCE) 도시 성문의 기능적 분석: 기념적/상징적/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4집(2007), 136-42쪽.

창 28장 13절에서 야곱은 신의 현현이 있던 베델에서 야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체바를 세웠다. 돌기둥의 세워짐(בנין)의 연관성은 창 28장 12절에 사다리가 세워지고 야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서있음을 통해서 신의 현현을 강조한다. 창 28장에서 나타난 야훼의 현현을 통해서 마체바는 사다리가 세워지는 것과 연관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교통의 수단과 연결의 상징 체계로 이해된다. 창 28장 22절에 야곱이 세운 마체바는 성전이나 제의 장소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집(성전)이 될 것을 함축화하고 정당화한다.²⁵⁾

호 3장 4절에 언급된 마체바는 제의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림버그(J. Limburg)는 제의적 마체바는 바알 종교의 한 부분으로 이스라엘 종교에 스며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신 16장 21-22절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²⁶⁾ 하지만 마체바의 형태가 가나안 청동기 시대에 바알 종교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한 것은 인정하지만, 마체바가 가나안의 유일한 종교 형태의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체바의 종교 형태와 현상은 고대 서아시아에 만연되어 있던 종교 개념의 한 형태이며, 이스라엘 종교에 들어온 마체바의 형태는 고대 서아시아의 형식을 빌려 고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종교적 의미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북 왕국 이스라엘 공식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마체바는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세의 언약에서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 왕국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아 마체바의 제의적 형태가 대표적인 대중 종교 안에 자리 매김했던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돌기둥 마체바는 단순히 한 가지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흔적이 문헌적 증거를 통해서 입증된다. 문헌적 증거에 나타난 다양한 마체바의 기능은 고고학적 상황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²⁷⁾

4. 마체바의 고고학적 증거: 후기 청동기 - 철기 II 시대

돌기둥 마체바는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다양한 장소에 발견된다. 아브너(Uzi Avner)에 의하면 마체바의 분

25) de Moor, *윗글*(1996), 19쪽.

26) James Limburg, *Hosea-Micah*, (Atlanta: John Knox, 1988), 14쪽.

27) *윗글*, 37쪽.

포는 기원전 4,000-3,000년경에 증가하였으며, 기원전 6-3세기에 집 중화되었음을 주장한다.²⁸⁾ 구약성서에서 언급되는 마체바는 본래 비문 이나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평범한 돌기둥을 의미하며, 모양이 없는 돌 기둥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II 시대까지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점차적으로 증가된 마체바의 현상은 이집트이나 메소포타미아로 기원된 제국의 종교적 관습과 어떠한 형상이나 비문을 돌 위에 새겨진 것을 거부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마체바 본래의 어떠한 문양도 새겨지지 않은 형태의 제의적 유물로 사용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게브(Negev) 광야의 마체바의 흔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팅거의 연구에 의하면 네게브 광야는 야훼 종교의 발생지로 주장된다. 아브너는 우브다 계곡(Uvda Valley)과 팀나(Timna)에서 마체바를 연구하였다. 아브너는 엘리아트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우브다 계곡에서 40여 개가 넘는 마체바가 세워진 장소를 발견하였다.²⁹⁾ 아브너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일련의 특정한 숫자의 마체바의 출현(2, 3, 5, 7, 9, 12, 16)과 동일한 숫자의 마체바는 고대 서아시아의 신들의 세계와 연관된 것으로 주장한다.

팀나 계곡에서 일련의 마체바가 원래의 세워진 자리(*in situ*)에서 발견되었다. 로텐버그(B. Rothenburg)는 마체바가 발견된 곳이 미디안족의 산당임을 주장하고 마체바가 야훼-그룹 사이에 행하여진 비-우상적인 종교 행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주장한다.³⁰⁾ 왜냐하면 야외 산당에서 발견된 마체바는 어떠한 우상적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순수한 돌기둥의 형태로 후기 청동기 시대 이후로 므깃도, 하솔, 키탄, 게셀, 세겜, 그리고 벵산(Tel Beth-Shan)에서 입증되기 때문이다.

므깃도(Tel Megiddo)의 철기 시대에 종교적 제의 장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돌기둥은 큰 성전 건축물과 연관되어 발견되었다. 슈마허(Schumacher)에 의하면 성전 건축물과 연관된 점, 야외 제의 장소에서

28) Uzi Avner, "Desert Shrines Dedicated to Imageless Gods," *BAR* 23 (1997), 49쪽; idem, "Ancient Agricultural Settlement and Religion in the Uvna Valley in Souther Israel," *BA* 53 (1999), 136쪽.

29) Avner, *빛글*(1990), 133-40쪽.

30) B. Rethenburg, et al., *The Egyptian Mining Temple at Timna*, (London: Uni. College, 1988), 277쪽.

제의 도구로 사용된 점, 그리고 제의에 사용된 다른 도구들의 발견을 통하여 돌기둥이 제의적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한다.³¹⁾ 결국 성전 건물과 연관된 제의적 마체바는 이스라엘의 텔(tel)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제의적 유물로 성전과 마체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키탄(Tel Kitan)에서 발견된 그룹의 마체바는 성전 건축물 앞에 일렬로 세워져 있으며, 키르베트 알-무다냐(Khirbet al-Mudayna)에서도 도시 성문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도시 성문 앞에 마체바가 세워져 있다.³²⁾ 유시쉬킨(D. Ussishkin)은 주장하기를 므깃도에서 발견된 여섯 개의 일련의 제의적 마체바는 제의가 시행된 방의 중앙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두 개의 큰 마체바는 산당의 제의적 행위에 중심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두 개의 마체바의 건축 구조는 므깃도에서 이중 제의가 수행되었음을 증거 한다.³³⁾ 결국 므깃도의 마체바는 왕권의 행정 체계 아래 공식 제의에 사용된 도구임을 알 수 있다.³⁴⁾

후기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세겜의 성전에서 발견된 마체바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겜의 마체바는 세겜의 성전에서 행하여진 중요한 종교적 사유로 증명된다. 메팅거에 의하면 세겜의 마체바 기둥은 사 9장 6절에 소개된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었던 곳에 세운 돌기둥임을 주장한다.³⁵⁾ 세겜에 세워진 돌기둥은 창 33장 20절과 수 24장 26절에 세워진 기둥과 같은 계약/조약의 마체바의 기능을 나타낸다.

게셀(Tel Gezer)에서 마칼리스터(R. A. S. Macalister)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끝이 둥근 형태의 열 개의 돌기둥을 수많은 유아 장례 흔적과 함께 발견하였다.³⁶⁾ 게셀의 주변과의 경계나 구분이 없는 상황은 마체바가 언약과 계약의 돌기둥보다는 유아 매장을 통하여 표시적/제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아트(Eliat)의 한 장소에서는 98여

31) Mazar, *위클리*(1990), 181쪽.

32) P. M. M. Daviau and Margreet Steiner, "A Moabite Sanctuary at Khirbat al-Mudayna," *BASOR* 320 (2000), 1-21쪽.

33) D. Ussishkin, "Schumacher's Shrine in Building 338 at Megiddo," *IEJ* 39 (1989), 157쪽.

34) 므깃도는 왕상 4장 12절에 솔로몬의 행정수도(하술, 무깃도, 게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35) Mettinger, *위클리*(1995), 187쪽.

36) William G. Dever, et al., "Further Excavation at Gezer, 1967-1971," *BA* 34 (1971), 120-124쪽; D. W. Manor, "Massebah," *ABD* 4: 602쪽.

개의 그룹 돌기등이 발견되었는데, 엘리아트(עֲלִיָּאֵת)의 마체바는 조상신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작은 마체바의 큰 그룹은 종종 묘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마체바의 근처에는 매장된 사람의 유골/뼈들이 무수히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³⁷⁾

마체바는 철기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후기 청동기에 많이 나타난다. 특히 하솔(Tel Hazor)에서 중기/후기 청동기(IIIB)에 해당되는 열 개의 그룹 마체바가 발견되었다. 하솔의 마체바는 태양, 달, 그리고 태양을 향하고 있는 두 손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 달 문양은 달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 서아시아의 고고학적 사유를 통하여 입증되었다.³⁸⁾ 하솔에서 발견된 마체바는 정교한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마체바의 크기는 22-65 Cm의 크기에 해당되며, 마체바의 앞에는 제단이 놓여 있다. 돌로 만든 제단은 직사각형의 얇은 형태로 열 개의 마체바 중 하나는 좌장의 형태로 오른손에는 작은 컵(술잔?)을 들고 있으며 가슴에는 달 모양이 새겨져 있다. 고대 서아시아의 도상 연구에 의하면 좌장 형태의 상은 신, 왕, 혹은 신성화된 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⁹⁾

하솔의 마체바의 문양에 대해서 야딘(Y. Yadin)은 초기 바알 하몬(Baal Hamon)과 타넛(Tannit)의 제의 흔적임을 제안한다.⁴⁰⁾ 바알 하몬에 대한 숭배는 카르티지(Carthage)와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알려졌으며, 카르티지(Carthage)에서 발견된 푸닉(Punic)의 수백 개의 마체바에 디스크와 손 모양이 새겨져 있다. KTU 1.6: VI.45-50; 1.17: I.26-28에 의하면 돌기등에 새겨진 태양은 차가운 돌기등에 비취는 태양 빛을 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태양의 열은 죽은 자의 부와 영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상징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푸닉과 고대 서아시아의 자료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습의 마체바는 고대 서아시아의 종교적 기본 개념이 고대 팔레스타인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베델, 헤브론, 그리고 브엘세바의 마체바들은 초기 야훼 종교에서 합법

37) Avner, 릿글(1997), 50쪽.

38) Y. Yadin, "Excavations at Hazor," *BA* 19 (1956), 10쪽.

39) Mettinger, 릿글(1995), 181쪽.

40) Yadin, 릿글, 10쪽.

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야훼스트(Yahwist)나 엘로히스트(Elohist)에게는 우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올리안(S. M. Olyan)이 지적하고 있듯이, 마체바가 적어도 바-신명기 사가에 있어서 합법적인 야훼 종교의 상징으로 사용된 증거를 제시한다.⁴¹⁾ 출 24장 4절에 모세는 시내산 아래 단을 쌓고 열 두 기둥(קִּבְּרִים)을 세운다.⁴²⁾ 그리고 돌기둥(קִּבְּרִים)이 세워진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의식이 이루어진다. 결국 마체바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야훼와의 영원한 대행자와 증인으로 기념적/언약의 상징으로 세워진다.⁴³⁾

아하로니(Y. Aharoni)는 유다의 변방 요새인 아라드(Tel Arad)의 발굴 작업을 통하여 철기 I 시대의 야외 산당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솔로몬 시대 이전의 종교적 제의에 사용되었던 마체바를 발견하였다.⁴⁴⁾ 마체바 근처에 제의에 사용된 흔적으로 동물 뼈와 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아라드는 초기 공식 종교의 형태로 마체바가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⁴⁵⁾

5.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체바의 의미

마체바가 종교적 삶의 자리에서 발견될 때 마체바는 제단, 테이블, 제의의 흔적(뼈, 재, 제의 용기들), 그리고 바신(basin)들과 연관되어 있다.⁴⁶⁾ 대부분의 마체바의 설치 방향이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게 설치된 의도와 성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마체바의 설치는 빛을 발하는 삶, 풍요, 그리고 절대적 힘의 현존을 믿는 기본적인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⁷⁾ 출 20장 25절과 신 27장 6절에 의하면 마체바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다듬지 않은 평범한 돌의 형태는 마체바에 대한 기

41) Saul M. Olyan, *Asherah and the Cult of Yahweh*, (Atlanta: Scholars, 1988), 73-74쪽.

42) 창 31:13, 45: 35:14, 20을 참조하라.

43) E. Stockton, "Stones at Worship," *AJBA* 1 (1970), 58-59쪽.

44) Y. Aharoni, "Arad: Its Inscriptions and Temple," *BA* 31 (1968), 18-32쪽.

45) Mettinger, *윗글*(1995), 149쪽.

46) Daegyu J. Jang, "Water Basin," Katharine D. Sakenfeld(ed.),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2008), forthcoming.

47) Avner, *윗글*(1984), 118-19쪽.

능과 의미에 대해서 규명하는 일에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비문이 새겨진 마체바(돌기둥)는 적어도 비문의 설명으로 자체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마체바와 같이 어떠한 비문 혹은 이미지가 없는 돌기둥은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고대 서아시아의 돌기둥이 다른 신들을 상징화한 고대 조상 제의로부터 기인하여⁴⁸⁾ 돌기둥에 신의 형상을 새기거나 문양이 그려지는 것과는 달리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마체바의 형태는 토라에 준하여 어떠한 모양이나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다.⁴⁹⁾

마체바는 고대 서아시아 지역을 통하여 발견된 조각상에 나타난 신들의 그룹과 비슷한 유형이 있다.⁵⁰⁾ 마체바는 신들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출 20장 4절에 언급된 어떠한 신의 모양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반영한 돌기둥이다. 창 28장 22절(17절)에 야곱은 야훼를 상징하는 무형의 마체바를 세움으로 그곳을 야훼의 집으로 명명하였다. 메팅거는 초기 이스라엘인의 마체바는 제의적 상징물로서 “물질적 반-우상주의”라고 명명하며 야훼를 상징하고 숭배하는 합법적인 형태로 인정받게 된다. 빈-의자 상은 창 25장 22절에서 보이지 않는 야훼를 향한 일반적인 옥좌 형태라 할 수 있다. 빈 공간은 고대 이스라엘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개념으로 인간의 가시적인 형태로 보이는 야훼가 아니라 무형의 야훼를 상징한다.⁵¹⁾

초기 이스라엘의 제의 형태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야외 산당에서 행하여졌다.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돌 마체바는 일반적인 제의의 기본 도구로 철기 시대 이스라엘에서 세워졌으며, 이스라엘 종교 문화에서 만연되었다. 호 3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문자적으로 אֲשֵׁרָה)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마체바인 주상은 호세아 시대의 기원전 8세기의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전형적

48) Amihai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0), 212쪽.

49) Graesser, *위글*(1972), 46쪽.

50) 페니키아(Phoenicia)에서 발견되는 돌기둥은 특별히 몰렉(Molek) 신에게 바쳐지는 제의와 연관이 있다.

51) Ruth Hustrine, “Understanding Ashera: Exploring Semitic Iconography,” *BAR* 17 (1991), 58쪽.

이며 보편적인 제의 도구였음이 입증된다.⁵²⁾

철기 시대의 마체바는 청동기 시대의 것과 구별된다. 메팅거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청동기 시대의 마체바는 다양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철기 II 시대는 단독적으로 마체바가 세워져 있는 장소가 많이 발견된다.⁵³⁾ 단독적인 마체바의 설치는 아라드, 라기스, 수소 장소(Bull Site), 디르사(Tirzah), 그리고 타아낙(Taannak)에서 발견된다. 마체바가 그룹 형태에서 단일 형태의 마체바로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개념이 철기 II 시대로 접어들면서 단일 신론적인 제의에서 이제는 유일신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우상 숭배의 도상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시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단절됨과 더불어 동시에 연속되었음이 고고학적 사유를 통해서 입증된다. 앞에서 언급된 후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하솔의 열 개의 마체바는 태양 모양의 디스크와 달 신을 향한 두 손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 발굴된 사유를 통하여 테일러(J. Glen Taylor)는 하솔의 마체바를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상징하고 아이콘으로 태양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⁴⁾ 왕하 23장 11절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에 유다의 요시아 왕은 야훼의 전통을 파괴하였다. 요시아 왕은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다. 이 말들은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있는 시중 나단멜렉(Nathan-melech)의 집 곁에 있던 것이었다. 만약 제의적 기구인 말과 태양 수레가 예루살렘 성전과 야훼와 연관되어 있었다면, 요시아는 말들과 태양 수레를 제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야훼는 사 60장과 호 6장에서 태양의 비유로 소개된다. 사 60장 1절과 호 6장 3절에 나타난 '임하다, 나오다'의 נָּוַר 는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이다. 스미스(Mark S. Smith)는 야훼의 이름이 נָּוַר

52)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주상을 "sacred stones," New Jerusalem Bible는 "sacred pillar," Jewish Publication Society Old Testament는 "pillar"로 번역하고 있다.

53) 철기 II 시대의 마체바도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단(Tel Dan)의 성문 입구와 성문 안에서 발견되었다. Avraham Biran, "Sacred Spaces: Of Standing Stones, High Places and Cult Objects at Tel Dan," *BAR* 24 (1998), 38-45, 70쪽을 참조하라.

54) J. Glen Taylor, "Was Yahweh Worshipped as the Sun?" *BAR* 20 (1993), 53쪽.

(새벽), **חור** (나오다) 그리고 **אור**(빛)와 연관될 때는 태양화된 야훼종교(solarized YHWHism)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⁵⁵⁾ 성서 외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이름들(**אורייה** 그리고 **אריה**)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우리야(Uriah) 그리고 우리야후(Uriyahu)와 유사한 이름으로 ‘야훼는 빛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⁵⁶⁾ 철기 II 시대 이스라엘 왕권은 태양 비유와 연관된다. 태양에 대한 왕정의 도형학적 관점에서도 날개가 있는 태양 디스크(solar disk)는 말 3장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왕정과 비교된다. 성서적(문헌적) 증거와 더불어 고고학적 증거가 증명하듯이, 태양에 대한 비유적 언어는 이스라엘 왕 야훼를 나타낸다.⁵⁷⁾

마체바는 이스라엘 종교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마체바는 이스라엘 왕권에서 지속적인 계승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위성 도시의 산당 및 성전(Arad, Dan, and Beth-Shemesh)과 개인/가정의 제의 장소에서 철기 II 시대에 대중 종교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마체바가 종교적 유물로 사용되고 허락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마체바가 어떠한 형상이나 비문이 새겨지지 않은 반-우상적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후기 청동기 - 초기 철기 I 시대에 마체바가 사막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의 종교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에 반하여, 철기 II 시대에는 토양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서는 잘 다듬어진 마체바가 제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마체바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창세기의 E 문서와 이사야에서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언급에 대한 E 문서는 이스라엘인에 의해서 세워진 마체바에 한정된다.⁵⁸⁾ 출 34장 24절의 언약 문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체바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파괴할 것을 명령한다. 신명기와 역대기 기자의 문헌도 마체바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마체바의 부정에 대한 이유는 야훼보다 다른 신들에게 마체바가 바쳐

55) Smith, 윌글(2002), 116쪽; J. Glen Taylor, *Yahweh and the Sun: Biblical and Archeological Evidence for Sun Worship in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1993), 92-93쪽.

56) Jeffrey H. Tigay,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Atlanta: Scholars, 1987), 47, 55쪽.

57) Smith, 윌글(2002), 119-20쪽. 결국 야훼를 표현한 태양과 연관된 언어와 모양은 두 단계로 발전하였다. 첫째는 가나안 문화를 기초로 하여 신의 현현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신적 용어의 기원에서 발전하였으며 둘째는 이스라엘 왕권의 영향 아래 발전하게 되었다.

58) 창 28:18, 22: 31:13, 45, 51, 52: 35:14, 20.

진 이유에서 기인한다. 신 16장 22절에서 야훼는 마체바를 증오하고 싫어하며 신명기 사기는 끊임없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마체바를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제하여 버리도록 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야훼를 위한 마체바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변화되어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이사야 6장 13절에 나타난 מצבת/מצבתה의 의미와 기능

사 6장 13절에 소개된 מצבת/מצבתה를 마체바로 규정한다면 그 기능은 어디에 속하는가? 본문에서의 마체바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종교적/제의적 기능이다. 문헌적/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행한 대중 종교의 대표적인 제의적 유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야훼와 우상의 산물 마체바이다. 제의적 배경에 대한 증거는 사 6장 9-10절의 문헌적 증거도 13절에 언급된 מצבת/מצבתה가 제의적 기능임을 입증한다.⁵⁹⁾ 본문에 소개된 מצבת/מצבתה는 구약성서에서 다른 제의적 혹은 이방 숭배의 종교적 요소들과 연합하여 그 제의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특히 테러빈 나무와 오크 나무는 구약성서에서 제의적 요소를 암시하고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빈 나무(אלר)는 겔 6장 13절과 호 4장 13절에서 이방 신 숭배가 이루어지는 제의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의적 물건들과 연관되는 것이 창 35장 4절, 수 24장 26절, 삿 6장 11절, 19절, 그리고 왕상 13장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오크나무(אילן)는 예언서에서 여섯 번 언급되는 상황에서 3번이 이방 신 숭배와 연관되며(사 2: 13, 44: 14; 호 2: 13), 제의적 도구와도 연관된다.⁶⁰⁾ 마체바가 나무와 돌과 연관되어, 특히 우상을 위한 제의적 물건임을 사 37장 19절과 다른 문헌(신 4: 28; 28: 36, 64; 왕하 19: 18; 렘 3: 9; 겔 22: 32)에서도 증거 한다. 간접적인 증거는 사해사본 1Q^{sa}과 비교하여 왓츠(Watts), 올브라이트(Albright), 아이라이(Iwry)는 관계사(אשר)를 명사 아세라(אשרה)로 수정하여 읽을 것을 주장한다.⁶¹⁾ 만

59) Craig Evans, *To See and Not Perceive: Isaiah 6.9-10 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89), 45, 186, n.166쪽.

60) 창 12: 6, 13, 18; 14: 13, 18; 1: 1; 삿 9: 6, 37; 삼상 10: 3.

61) J. D. W. Watts, *Isaiah 1-33*, (Waco: Words, 1985), 68쪽.

약 원문의 변형이 위에서 언급된 제의적 요소(테러빈/오크 나무)와 더불어 대중종교에 깊게 자리 매김한 마체바(바알)의 여신 아세라를 의미한다면, 사 6장의 제의적 배경을 더욱 더 확고하게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6장 13절에 소개된 **מַצְבָּת/מַצְבֹּתָא**는 제의적 상황과 우상 숭배를 나타낸 제의적 돌기둥(**מַצְבָּת**)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⁶²⁾

מַצְבָּת/מַצְבֹּתָא의 두 번째 기능은 기념적/상징적 역할을 한다. 마체바는 이스라엘의 떨어진 영광과 남은 자에 대한 증거이며, 기념(회고)/상징적 매개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과거의 영적 타락을 재현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인 것이다. 사 6장의 수사적 구조가 이사야의 회고/회상(*Denkschrift*)로 간주된다면,⁶³⁾ 사 6장 1절에 바라본 웃시아 왕권의 죽음과 배임을 당한 마체바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왕권을 상징하고 회고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상징하는 웃시아의 죽음은 결국 13절에서 야훼의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이다.⁶⁴⁾ 왓츠는 무너진 왕권 안에서 **מַצְבָּתָא**가 '장례적 기념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지만,⁶⁵⁾ 본 논고는 13절의 마체바가 우상 숭배로 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고 고통 당한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기념적 마체바로 규정한다.

7. 나가는 말

초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마체바는 반-우상적 도상의 특징을 지닌 야훼의 현현과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의 도구였다. 마체바는 기존의 도상학적인 형태의 고대 서아시아의 전통과는 반대로 야훼 신의 보이지 않는 절대적/추상적 모습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반-우상적인 형태의 마체바는 아세라, 제단, 그리고 우상적 이미지(테러빈/오크 나무)와 연결되어 초기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이 오염되게 되었다. 이방 민족의 제의적 영향으로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한 마체바는 본래 정신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 본래의 기능과 이미지

62)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은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방 우상숭배의 상징인 마체바로 규정한다.

63) Gitay, *윗글*(1991), 117쪽.

64) 이방 우상숭배의 요소들에 대한 파멸과 제거는 사 17장 8-11절과 27장 9-11절에 다시 언급된다.

65) Watts, *윗글*, 68-77쪽.

가 퇴색되고 변화하게 되었다. 이사야는 이제 마체바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파괴되어야 할 모습으로 강조한다.

사 6장 13절에 언급된 마체바는 사 6장 9-10절에서도 사용된 우상 숭배의 언어와 연결된 점 그리고 13절에 언급된 테러빈 나무와 오크나무의 종교적/제의적 이미지에 대한 연결은 결국 13절의 마체바를 제의적 마체바로 사용되었음을 증거 한다. 13절의 마체바는 나무가 잘린 후에 나무 기둥(a wooden pillar)의 형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구약성경에서 나무로 사용된 마체바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마체바는 언제나 돌기둥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산당에서 목상(아세라 목상)과 연관되어 그 기능이 소개되고 있다.(왕상 14: 23) 이미 본문에서 우상 숭배의 산물로 소개된 테러빈(사 1: 29-30)과 오크나무는 마체바와 함께 제의적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기에, 그루터기가 아닌 돌기둥 마체바가 되어야 한다. 본래 야훼를 위한 정신과 형태는 진정한 숭배에서 우상으로 변화되었다. 사 6장 13절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과 연결된다. 본 구절의 목적은 결국 야훼의 심판은 결국 야훼 숭배에 사용된 마체바의 오염에 있다는 것이다. 제의적 마체바는 결국 야훼의 현현의 상징으로 숭배되었지만, 이제는 우상의 모습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부서져야 하고 파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야훼 종교에서 참 신앙의 본질은 변질된 마체바의 형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체바를 이방 신의 영혼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숭배하였고, 이방 신을 바라보며 듣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 파괴된 마체바는 후반부에 기념적/상징적 매개체로 자리 매김 한다. 분명히, 마체바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적인 종교 형태에서 금지되고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는 이미 이스라엘의 대중 종교로 정착하여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이사야는 그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고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제거는 영적 회복을 의미하며,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희망은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고 상징하는 곳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8. 참고문헌

- 김 회권, “남은 자 사상에서 나타난 이사야의 민족통합 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 (2005), 41-65쪽.
- 장 대규, “이스라엘 철기 II 시대(1000-586 BCE) 도시 성문의 기능적 분석: 기념적/상징적/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4 (2007), 136-42쪽.
- Aharoni, Y., “Arad: Its Inscriptions and Temple,” *The Biblical Archaeologist* 31 (1968), 18-32쪽.
- Albright, W. F., “The High Place in Ancient Palestine,”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5 (1957), 242-58쪽.
- Avner, U., “Ancient Cult Sites in the Negev and Sinai Deserts,” *Tel Aviv* 11 (1984), 115-131쪽.
- _____, “Ancient Agricultural Settlement and Religion in the Uvda Valley in Southern Israel,” *The Biblical Archaeologist* 53 (1990), 125-41쪽.
- Benzinger, I., *Hebräische Archäologie*, (Tübingen: J. C. B. Mohr, 1907).
- Biran, A., “Sacred Spaces: Of Standing Stones, High Places and Cult Objects at Tel Da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4 (1998), 38-45, 70쪽.
- Brownlee, W. H., “The Text of Isaiah VI 13 in the Light of DSIa,” *Vetus Testamentum* 2 (1951), 296-98쪽.
- de Moor, J. C., “Standing Stones and Ancestor Worship,” *Ugarit-Forschungen* 27 (1995), 1-20쪽.
- Dever, W. G., et al., “Further Excavation at Gezer, 1967-1971,” *The Biblical Archaeologist* 34 (1971), 120-24쪽.
- Emerton, J. A.,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Isaiah vi.13,” J. A. Emerton and Stefan C. Reif (eds.), *Interpreting the Hebrew Bible: Essays in Honour of E. I. J. Rosenth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Gitay, 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The Netherlands: Van Gorcum, 1991).
- Graesser, C. F., “Standing Stones in Ancient Palestine,” *The Biblical Archaeologist* 35 (1972), 34-62쪽.
- Hestrin, R., “Understanding Ashera: Exploring Semitic Iconography,”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7 (1991), 50-52, 59쪽.
- Iwry, S., “MASSEBAH and BAMAHA in 1Q IsaiahA 6 1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6 (1957), 225-33쪽.
- Jang, Daegyul J., “The Iron Age II City Gates in Palestine: The Textu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Ph.D. dis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6).
- _____, “Water Basin,”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Katharine D. Sakenfeld (ed.), (Nashville: Abingdon, 2008).
- Mazar, A.,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0).

- Mettinger, T. N. D., *No Graven Images? Israelite Aniconism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International, 1995).
- Olyan, S. M., *Asherah and the Cult of Yahweh in Israel*, (Atlanta: Scholars, 1988).
- Rethenburg, B., *The Egyptian Mining Temple at Timna*, (London: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ersity College London, 1988).
- Sawyer, J., "The Qumran Reading of Isaiah 6.13," *Annual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3 (1964), 111-13쪽.
- Seitz, Ch. R., *Isaiah 1-39*,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3).
- Smith, M. S.,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2002).
- Stockton, E., "Stones at Worship," *Australian Journal of Biblical Archaeology* 1 (1970), 58-81쪽.
- Taylor, J. Glen, *Yahweh and the Sun: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Sun Worship in Ancient Isra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 _____, "Was Yahweh Worshipped as the Su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0 (1994), 53-61, 90-91쪽.
- Ussishkin, D., "Schumacher's Shrine in Building 338 at Megiddo," *Israel Exploration Journal* 39 (1989), 149-72쪽.

검색어

마체바

야사야 6장 13절

문헌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기능 연구

투고일: 2008년 4월 28일

심사일: 200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8일

MAṢṢĒBĀ in Isaiah 6: 13: It's Meaning and Function

Dae-Gyu Jang

Lecturer at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erpret *maṣṣebet/maṣṣabtāh* in Isa 6: 13 by utilizing the textu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This paper articulates that the terms *maṣṣebet/maṣṣabtāh* in Isa 6: 13 are associated with a standing stone (*maṣṣebā*) in light of textual evidence (Old Testament/Ugaritic texts) and archaeological discoveries. The *maṣṣebet/maṣṣabtāh* has four major functions: (1) to mark the memory of a dead person or the burial position of his/her grave, (2) to mark a legal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3) to commemorate and to memorize an event, and (4) to mark the sacred area where a deity is immanent.

The *maṣṣebet/maṣṣabtāh* ranges in date from the eleventh to the early seventh century BCE in Palestine (Megiddo, Shechem, Tirzah, Lachish, Gezer, Hazor, Hebron, Bethel, Beersheba, Arad, and the Southern Negev area including the Uvda Valley). The aniconic nature of the *maṣṣebah* enabled early (nascent) Israelites to interpret them as commemorative of YHWH's theophanies and historical acts. These *maṣṣebot* were an abstract representation of God/YHWH as opposed to

the tradition of iconographic representation, which was predominant in the ancient Near East. Later, the massebah was often related with asherah, altars, a terebinth, an oak, and high places(v.13).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s swept away the original function/meaning of the massebah in Israel.

The *massebet/maṣṣabtāh* changed its original function and as an image. For this reason, Isaiah considers the *massebet/maṣṣabtāh* to be prohibited under the second commandment. The use of the *massebet/maṣṣabtāh* is not a late innovation, but the logical conclusion of a very long development in ancient Near East and Palestine. The *massebet/maṣṣabtāh* as aniconic representations of a deity showed an aspect of popular religion. Isa 6: 13 is linked to their judgement based on idolatry conducted with massebah, which was the solid expression of their idol worship. Thus, the *massebet/maṣṣabtāh* function as cultic and memorial/symbolic ones.

Keywords

Massebah
Isaiah 6: 13
Textual Evidence
Archaeological Evidence
Functional Use